

心田 安中植作 蘆雁圖

李 慶 成

紙本淡彩
高 138cm 幅 70cm
雙 屏 風
1917年丁巳作
弘大美術館藏

心田 安中植은 1861年(哲宗 12年 辛酉)에 順興에서 태어나고 1919年 10月 26日에 59歲로 서울에서 死亡한 近代의 畫家이다. 그는 처음에는 畵相이라 이름지었고 號는 心田, 벼슬은 畫員이면서 陽州·通津郡守를 지냈다. 일찌기 吾園 張承業에게서 그림을 배우고 小琳 趙錫晉과 같이 同門의 雙璧을 이룬 同時에 高麗美術院 등에서 靑田 李象範, 以堂 金殷鎬, 墨鷺 李用雨, 靜齋 吳一英, 心汕 盧壽鉉, 鼎齋 崔禹錫, 貫齋 李道榮등을 가르쳤다. 性品이 清廉溫和하고 詩書畫를 모두 잘 다루었다. 特히 書藝는 楷書 行書 草書 隸書등 모든 書體에 能했고 그림은 山水·人物·花鳥를 다 잘 그렸다.

1884年(高宗 21年) 趙錫晉과 더불어 官費로 中國에 留學한 바 있다.

화가로서의 心田은 기울어져가는 李朝의 重壓과 밀려드는 強大國이 자아내는 韓末의 어수선한 狀況속에서 近代畫家로서의 길을 걸었고 자기나름대로의 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心田의 評價에서 잊을 수 없는 것은 그의 作家的 力量과 아울러 美術教育家 또는 美術運動家로서의 그를 올바르게 보아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美術教育家로서의 心田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近代에서 現代에 걸쳐 韓國의 東洋畫를 담당하게 되는 모든 畫家가 그의 門下生이라는 점을 보아도 짐작이 간다. 그의 美術教育은 私塾形式에 依한 것과 高麗美術院이라는 本格的인 美術教育機關 그리고 書畫協會를 中心한 것등으로 나눌 수 있다. 私塾形式은 자세한 記錄이 남아있지 않아 口傳과 推測으로만 당시의 사정을 억측할 뿐이지만 高麗美術院은 當時의 記錄¹⁾과 以堂, 靑田, 心汕등 生存者의 證言으로 確認할 수가 있다. 元來 高麗美術院²⁾은 1911年 3月 22日에 發足한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긴 본격적인 美術教育機關이었으니 처음에는 李根培, 李完用, 趙重應등의 補助金으로 始作되었으나 나중에는 李王職의 뒷받침으로 4年制 學校가 되었다.

그후 1919年 3.1運動 以後에는 當初부터 이곳에 스며들고 있던 親日的 要素때문에 그 存在理由가 희박해지고 더우기 이 院의 中心의 人物이었던 心田이 死亡(1919年 10月 26日)하자 完全히 끝을 막고 말았다. 그리고 보면 心田 安中植은 高麗美術院의 精神的 支柱였다. 美術運動家로서의 心田은 이미 새로운 美術教育의 흐름 속에서 近代에서 現代에로의 준비를 하였으나 더욱 具體的인 例로는 1918年 6

1) 國立圖書館藏 每日申報

2) 李慶成 : 「韓國繪畫의 近代의過程」 梨大 韓國文化論叢 第一輯(1959年)

李龜烈 : 「書畫美術會」 美術資料 第13號(1969年 12月)

月 19日에 發足한 書畫協會의 會長이었었다는 것을 들수 있다. 이 書畫協會에 對하여는 創立의 主動의 役割을 한 春谷 高義東의 回顧가 무엇보다도 산 資料가 된다.

「이제로부터 33年前(1954年現在)이었다. 우리에게는 畫壇이니 美術團體이니 하는 것은 이름조차 없었다.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리하여 너무도 딱하게 생각하고 쓸쓸하게 여기었다. 그 당시의 書와 畫로서 名聲이 높던 몇몇분과 여러번 말을 하였었다. 우리도 當然히 한 團體가 있어서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定하고 後進을 養成하여야 한다고 恒常 말을 하고 지내왔다. 나는 이러한 생각이 난것은 日本 東京에서 美術學校를 卒業하고 돌아왔던 까닭이었다. 그리하다가 한번 여러분 先輩들을 招請하였었다. 同輩로는 貫齋 李道榮氏 한분 뿐이었다. 그리하여 發起人會를 組織하였다. 그분들을 追慕하기 兼하여 姓名을 列舉하면 이러하다. 小琳 趙錫晉氏, 心田 安中植氏, 壽山 丁學秀氏, 小湖 金應元氏, 渭士 姜弼周氏, 小蓬 羅壽淵氏, 海岡 金圭鎮氏, 貫齋 李道榮氏와 나는 畫家였고 又香 丁大有氏, 葦滄 吳世昌氏, 靑雲 姜璉熙氏, 惺堂 金敦熙氏 이는 書家이니 이 13人이 發起人이 되어 會를 組織하는데 爲先 名稱을 議定할새 美術 2字는 採擇을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書畫協會>라고 決定하였다. 이름이야 무엇이고간에 일만하면 된다는 뜻으로 그냥 하여 버렸었다. 그리하고 初代會長에 心田 安中植氏를 推戴하고 總務라는 名稱으로 내가 일을 맡게 되었다. 그리하여 會員을 薦學하고 會費를 徵收하며 長橋川邊의 어느 親舊의 집 舍廊을 빌어서 事務所를 定하고 于先 第1回로 展覽會를 열기로 하였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作品을 내려고들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1.2年 지내가는 中에 己未獨立運動이 일어나서 그냥 停止狀態에 들어가고 會長 安先生任이 別世하시여서 小琳 趙先生任이 會長이되었다가 또 別世하시고 又香 丁先生任이 會長이 되신 後 35年前에 비로서 처음으로 展覽會를 열었다. 每年 1回씩 열었었다. 그리하여 19回를 지내고 20회에 이르러 紀念展을 比較의 多彩롭게 할려고 努力을 하는 中 그 當時 日本警察에서 日支事變이 極甚하던 때이라 許可를 取消하고 停止를 命命하였다. 어찌할 수 없이 그만 두었다. 그러하게 지내는 동안에 協會會報도 發行하였었고 後輩養成하는 機關으로 書畫學院이라는 名稱으로 研究生들을 募集하여 相互研究케 한 일도 있었다.」³⁾ 結局 書畫協會 創立前의 書畫는 根本의인 데서는 李朝末期의 氣風을 枯息의으로 延長시키면서 좀처럼 새로운 覺醒에 到達하려 하지 않았다. 李朝末에 出生하여 畫家로서 一家를 이룬 姜璉熙, 丁大有, 趙錫晉, 金應元, 安中植, 李道榮, 高義東등은 그들의 李朝의 教養과 理念속에서 書畫一致 또는 詩畫 一致의 境地로서 1910年線을 넘어 近代에 까지 그들의 活動을 持續시키었다. 이때의 書畫의 傾向은 李朝의 圖畫畧의 畫風 즉 匠的인 技巧에 置重하는 것과 技巧보다는 精神에 무게를 두는 文人畫 系統의 그것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全般的으로 는 創造精神이 枯渴된 傳習과 되풀이가 傳統의 尊重이라는 美名下에 아무런 疑問도 없이 行하여졌고 私의習得이 技術鍊磨라는 평계속에 橫行하여 그들은 如前히 畫譜를 尊尙하고 中國의 畫幅을 模倣模



圖 1. 張承業 蘆雁圖

3) 高義東: 「나와 書畫協會時節」 新天地 1954年 2月號
 李慶成: 「韓國繪畫의 近代의過程」
 李慶成: 「書畫協會 創立前後」 美術資料 第4輯(1961年 12月)

寫하였다. 것처럼 그들은 生生하고도 直接的인 自然의 感動과 그것을 解析하고 그것을 自己個性에 適應시키는 創造를 모르고 오직 藝術과는 距離가 먼 一種의 붓의 遊戲를 하고 있었다. 그러한 觀念의 遊戲나 技巧의 虛構속에서 어찌 眞正한 藝術이 創造될 수 있는가.

× ×

이상 지나칠 程度로 心田 安中植과 그의 周邊의 이야기를 끌고 왔으나 그것은 결국 이 그림의 참다운 鑑賞을 위한 前提라고 생각한다. 이 그림이 果然 藝術的으로 價値가 있고 韓國의 繪畫史를 올바르게 이어왔고 이어갔느냐는 美學的 論議는 서둘러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다만 이 그림에 나타나



圖 2. 安中植 蘆雁圖

는 溫和하고도 正確한 視覺과 表現 能力이 近代繪畫史에서 共通으로 볼 수 있는 特徵的인 것이라는 것에 이야기의 焦點을 맞추고 싶다. 즉 心田의 이 그림은 心田 自身の 獨創的인 것이라기 보다는 그가 師事한 張承業에서 온 것이고 그 흐름은 역시 그의 後進 속에 이어왔다는 事實이다. 圖版 1에서



圖 3. 高羲東 蘆雁圖

보는 그림은 劉復烈이 所藏하고 있는 吾園 張承業의 蘆雁圖이다.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圖版 2의 心田의 蘆雁圖에서 보이는 霧圍氣와 거의 같은 느낌을 받으며 더구나 오른쪽의 나르는 기러기의 描寫는 거의 같다. 이 나르는 기러기의 모습은 亦是 春谷 高羲東의 나르는 기러기(圖版 3)와 같은 느낌의 것이다. 이 畫風의 類似性은 세사람이 모두 師弟之間이라는 特殊關係에서 오는 것이지만 그때의 美術教育이 作家 個性의 開發과 獨創力의 養成에 있는 것이 아니고 技法指導上에서 先生이 畫本을 만들고 弟子는 그 畫本을 充實히 模寫하는 것으로 그의 表現 能力을 길렀던 사실 때문이다. 이 점이 바로 앞에서 말한 「創造精神이 枯渴된 傳習과 되풀이가 傳統의 尊重이라는 美名下에 아무런 疑心도 없이 行하여졌고 私的 習得이 技術 鍊磨라는 핑계 속에 橫行하여 그들은 如前히 畫譜와 畫本을 尊尙하고 中國의 畫幅을 模倣 模寫하였다」는 具體的인 例이다.

이 藝術 姿勢의 잘못과 方法의 誤謬 때문에 韓國의 現代東洋畫는 아직도 獨自的인 境地에 到達 못하고 무거운 苦悶 속에서 呻吟하고 있다.